

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체계적 보존·관리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 고유 가치·문화적 자원 재조명 군, 중장기 발전방향·활용 계획 도출 목표에 용역 발주

신안군이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갯벌낙지 맨손어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체계적 보존·관리하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갯벌낙지 맨손어업의 고유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자원으로 보존·전승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군은 목표대를 사업자로 선정, 앞으로 4개월 간 '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 신안지역 맨손어업

에 대한 기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전승·활용계획,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을 도출해낸다는 구상이다.

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의 경우 남성은 '가래잡'을 사용하고 여성은 맨손으로 갯벌에 서식하는 낙지를 채취하는 전통 어업으로, 지난해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선정됐다. 가래잡은 일반잡보다 작고 깊이 뾰족해 갯벌을 파기 쉬운 모양으로 제작된 낙지잡이 전용 삽이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은 전통 어업 자원을

발굴, 보존·관리·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5년 도입했다.

지난 2015년 제주 해녀어업이 제1호, 보성 뱀어업이 제2호, 남해 죽방렴어업이 제3호로 지정됐다.

2016년에 신안 갯벌 천일염업 제4호, 2017년 완도 지주식 김양식어업 5호, 2018년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광양·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신안군은 이번 용역을 계기로 ▲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보존계획의 비전 및 기본구상 ▲유산적 가치 재조명 ▲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보존·투자계획 ▲향후 5년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에서는 지난해 943명이 갯벌낙지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기준 310억8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자원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의미, 활용계획 등을 도출해내 브랜드 가치 향상 뿐 아니라 주민 소득과 연계, 관광 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염산면사무소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설도항 둘레길 12km 구간에 조성한 코스모스 꽃길. 염산면이 정성스럽게 키워내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 설도항 코스모스길 자전거 여행 떠나요

염산면사무소, 합산항·청보리농장 등 12km 조성

영광군 염산면 설도항 둘레길에 코스모스 꽃길이 조성됐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염산면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설도항 둘레길 12km 구간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삼수차를 동원해 물을 주고 꽃밭을 따주며 정성스럽게 키워냈다.

염산면이 관리를 맡은 둘레길은 설도항-합산항 간 방조제 7km와 염전과 정보리 농장을 구경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 5km 등 12km로, 가족·연인과 자전거 및 도보 여행을 편안히 즐길 수 있다.

염산면은 코스모스가 둘러쳐진 둘레길을 둘러보려는 관광객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박노는 염산면장은 "질산 대교 개통을 앞두고 영광군이 더욱 매력 있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꽃길을 비롯,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광 불갑테마공원 천년 방아 휴가철 운영시간 확대

영광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갑 테마공원 천년 방아의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9월까지 주말에만 가동하던 것을 평일에도 운영한다.

불갑 테마공원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물레방아, 연못, 폭포, 분수대, 주차장이 있다.

인근에 불갑사관광단지과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신안 '섬 민어축제' 내달 3일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섬 민어축제' <포스터>가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난타공연, 판소리를 시작으로 민어회 썰기 퍼포먼스, 민어회 덮밥 만들기, 수산물 깜짝 경매, 임자도동놀이 등이 열린다.

부대행사로 환경오염 심각성과 바다환경 보전을 주제로 한 바닷길 걷기 명상 '공감', 물고기 프린팅체험 T-셔츠, 폐목재를 활용해 물고기를 만드는 '1004 물고기'와 초록바다 등이 펼쳐진다.

민어는 비만증,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중풍,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여름철 더위를 물리치는 최고의 음식으로 알려졌다.

미네랄이 풍부한 청정바다에서 잡히는



민어는 민어회, 민어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민어 어획량은 연평균 150t, 50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은 1kg당 6만원 선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함평서 특별 기획전 연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함평에서 만나볼 기회가 생겼다.

함평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특별기획전'을 연다.

전시는 '웰컴 투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판화·조각·사진·공예·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6점으로 채워진다.

작품 앞에 해당 작품 설명을 담은 QR코드를 비치, 큐레이터 없이 관람객 스스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되는 작품 모두 서양화와 한국화를 넘나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 소장품들로 국립현대미술관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지역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주)어스텍이 최근 영광 대마산단지 전기차 해체와 폐배터리 순환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주)어스텍 제공>

국내 첫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 전문업체

영광 대마산단에 들어선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Recycle·순환센터) 전문업체가 영광에 들어선다.

영광군은 최근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마산단단지내 전기차 해체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순환센터가 착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고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 곳에서 차를 해체하고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국내 사례는 처음이다.

순환센터는 (주)어스텍이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해 대지 2만6400㎡에 전체 건축 면적 1만6800㎡ 규모로 내년 3월 1

단계 준공한다. 전기차 폐차, 폐배터리 성능시험, 검사 설비와 장비 등이 구축된다.

폐배터리의 용량과 상태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한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 회수와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 연구와 사업화도 진행한다.

이 회사는 연간 최대 5000대의 전기를 해체하고 2000t의 폐배터리 처리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신안 안좌도에 '세계 화석·광물 박물관'

박윤철씨 수집 기증품 4000여점 전시

신안군 안좌도에 '세계 화석·광물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9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된 안좌도 안창초교를 사들여, 전시공간과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 등으로 박물관을 조성했다.

군은 신안 지도 출신 박윤철씨가 기증한 화석·광물 등 수집품 4000여점으로 박물관 내부 전시 공간을 채웠다.

박씨가 지역 발전을 위해 평생 모은 수집품을 신안군에 기증했다.

박물관이 들어선 안좌도는 세계적인 화가 수화 감환기가 태어난 곳으로,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천혜의 자연경관과 위

대한 화가의 발자취를 둘러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가 됐다.

신안군은 섬과 청정갯벌, 생태자원을 활용한 '1도(島) 1뮤지엄' 정책을 추진중으로 현재 압해 저널노출미술관, 증도 갯벌 생태전시관, 임자 조희룡기념관, 비금 이세돌바둑기념관, 흑산 박목순 미술관·철새박물관, 하의 천사 상 야외미술관, 안좌 화석광물박물관, 암태 에로스서각박물관 등 9개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조성된 상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문의. 010-6834-7400

